

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세팅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여자들이 결혼하는 남자는 따로 있다
광주지사 062-228-3222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농·축산물 최대 희생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전남 농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 협정은 전남 농업의 주요 소득원인 축산업 등에 막대한 타격을 불러와 농촌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FTA시대, 위기에 처한 전남 농업의 활로와 대안을 살펴 본다.

車·섬유 이익금, 농업에 쏘라

값싼 농산물 홍수...年 3천억 피해 예상 농가소득안정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미 FTA 타결의 희생양은 우리 농산물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와 섬유 수입의 단단한 빗장을 풀고 나온 것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는 '빅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타결은 전적으로 한국 농업의 양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미 FTA 성사 과정에서 희생된 한국 농업은 이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이같은 논리에서 한미 FTA로 부흥의 노래를 구가할 자동차·섬유 등 제조업 분야가 대미 수출에서 남기는 이익금의 일부로 농업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 농업이 겪어야 할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 1조 1천 552억원에서 최대 2조 2천 830억원에 이른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최소 9천 240억원에서 최대 2조 134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 농업생산액의 20%를 점유하며 대표적인 농도로 불리는 전남도의 예상 피해는 심각하다.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분석에 따라 추정된 전남 농업의 피해액은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 1천 781억원에서 최대 3천 370억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최소 1천 413억원에서 최대 2천

965억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전남의 농업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영세해 다른 지역보다 체감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지역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이 2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인 여섯 번째로 낮아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의 충격과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구체적으로 한우 등 전국 축산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15년 내 관세철폐로 소비자들이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경우 한우 홍수 출하로 인해 축산농가의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농업의 희생을 딛고 빅딜에 성공한 자동차 업계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 진출확대와 대외신인도 향상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은 한국자동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와 함께 FTA의 수혜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섬유의 경우 30%대 고(高) 관세로 수출돼온 스펀터 등 화학섬유 의류는 4%, 8%대 관세율을 보였던 원사, 면사 등에 비해 FTA 혜택을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FTA 타결에 대비해 현재 1조 2천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FTA 이행 지원기금을 확대해 농업소득을 보전하고 119조원을 투입할 자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조정 보완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가 농업피해를 발판으로 타결된 만큼 정부의 대책과 병행해 수혜업계에서도 이득에 상응하는 재원을 농업발전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의 희생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얻은 자동차와 섬유 등 수혜 업계가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협정 타결 공식기자회견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상품 한국산 인정

쌀, 개방 대상서 제외...車 특소세 3년내 5%로

한미 FTA타결 공식발표

▶관련기사 3·4·5·6·7·11면

한미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서로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5단계인 자동차세는 3단계로 줄이고 2단계인 특소세는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후인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돼 약 94%는 3년 이내 조기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3천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쌀은 FTA 타결에 따

■한미 FTA 타결 주요 내용

농산물	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쇠고기 15년내, 돼지고기 10년내 단계적 관세 철폐. 빠 있는 쇠고기 허브기 수입 재개.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저출항당관세(TRO) 적용
자동차	미국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승용차 3년내, 픽업트럭 10년내 관세 철폐. 한국 자동차 특소세 3년내 5%로 단일화. 자동차 세제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섬유	미국,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일산지 통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역외 가공지역 생산품 한국산으로 인정.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지역 혜택
지적 재산권	사후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발효후 2년 유예기간
서비스 투자	교육, 의료, 시회서비스 등 포괄적 유보. 사업 서비스 개방 통해 단계적 또는 부분적 개방계획 미룬. 케이블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른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고 오리엔지 등 과일만 수확기에 계절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현중 부장은 "경제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 무역협정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盧대통령 "쇠고기 합리적 개방" 구두 약속

대국민담화... "농업피해·실업 등 지원책 마련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미국산 쇠고기 위생 검역 문제와 관련, "다만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

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TV로 생중계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업피해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실업급여, 직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 성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선박,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온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유치합니다

주최: The Korea Government (대한민국 정부)
주최기간: 2012년 7월 1일 ~ 2012년 9월 30일
주최지역: 여수시, 여수시 남부지역, 여수시 북부지역
주최조직: 부산광역시, 여수시, 여수시 남부지역, 여수시 북부지역
주최협조: 부산광역시, 여수시, 여수시 남부지역, 여수시 북부지역

www.oxpo2012.or.kr